

분거가족 아내의 부부관계만족도 관련 요인: 학령기 자녀 유무에 따른 차이

공주대학교 기술·가정교육과 김 소 영

문제제기

- 본 연구는 남편과 분거하고 있는 아내의 부부관계만족도와 관련이 있는 요인들이 초·중·고에 재학중인 학령기 자녀의 유무에 따라 차이가 있는지 살펴보고자 하였음
- 부부가 어떠한 이유로 분거를 하든지 분거하는 가족이 주거주지를 어디로 선택할지의 문제에 있어서는 여러 요인들에 대한 고려가 있을 것이며, 또한 아내가 취업하지 않은 상태임에도 남편의 직장이 있는 곳으로 가족이 함께 이주를 하지 않고 분거를 선택한 이유에 대해서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음
- 선행연구는 분거하는 부부가 주거주지를 결정하는 데에 있어 가장 중요한 변수는 자녀의 양육이나 교육 환경이라고 보고하고 있으며, 특히 자녀의 교육환경이 중요해지는 학령기 자녀 가족의 경우 자녀 돌봄의 주된 책임을 맡고 있는 여성이 자녀와 동거하며 주거주지를 형성할 가능성이 높아짐
- 이 연구에서는 초·중·고 학령기 자녀가 있는 분거가족과 학령기 자녀가 없는 분거가족을 구분하여, 남편과 분거하고 있는 아내의 결혼만족도와 관련이 있는 요인에 차이가 있는지 살펴봄으로써 국내 분거부부에 대한 기존 연구에서 잘 드러나지 않았던 자녀교육이라는 변수가 분거부부의 부부관계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탐색해보고자 함

연구결과

<표 1> 분거가족 아내의 부부관계 특성과 부부관계만족도: 학령기 자녀 유무에 따른 차이

	학령기 자녀가 있는 아내 집단(n=98)	학령기 자녀가 없는 아내 집단(n=115)	t-value
부부공유활동 빈도	7.23(2.99)	6.35(2.45)	-2.34*
남편의 가사노동 분담 만족도	3.08(.82)	2.82(.98)	-2.14*
부부관계만족도	11.56(2.33)	10.57(2.65)	-2.89**

* $p<.05$, ** $p<.01$

<표 2> 분거가족 아내의 부부관계만족도 관련 요인: 학령기 자녀 유무에 따른 차이

	Coefficient	
	학령기 자녀가 있는 아내 집단(n=98)	학령기 자녀가 없는 아내 집단(n=115)
연령	-.02(.04)	-.04(.03)
취업	-.16(.40)	.56(.46)
남편 월평균 소득	.00(.00)	.003(.00)*
남편의 직장 때문에 분거	3.29(.82)***	2.03(.86)*
부부공유활동 빈도	.09(.08)	.23(.10)*
남편의 가사노동분담 만족도	1.32(.25)***	.61(.24)*
비전통적 결혼·가족 가치관	-.04(.05)	-.19(.05)***
상수	5.35(2.93)	12.09(2.51)***

* $p<.05$, *** $p<.001$

연구방법

- 여성가족패널 6차년도 데이터에서 부부가 현재 일시적으로 떨어져 살고 있다고 응답한 기혼 여성 213명을 추출
 - 초·중·고에 재학중인 학령기 자녀가 있는 여성 98명과 학령기 자녀가 없는 여성 115명으로 나누어 분석
- 부부관계만족도: ‘나는 남편과 평소 대화를 많이 한다’, ‘나는 남편과 서로 견해가 비슷하다’, ‘나는 남편과 부부생활에 만족한다’, ‘나는 남편을 신뢰한다’의 4개 문항에 대하여 ‘전혀 그렇지 않다(1점)’부터 ‘매우 그렇다(4점)’까지 응답한 4점 리커트 척도의 값을 합산하여 측정
- 독립변수: 연령, 취업 여부, 남편의 월평균 소득, 분거하는 이유, 결혼·가족 가치관, 부부공유활동 빈도, 남편의 가사노동 분담 만족도
- t-test, 회귀분석 실시

논의

- 학령기 자녀가 있는 분거가족 아내가 학령기 자녀가 없는 분거가족 아내에 비해 지난 한 달간 부부가 같이 활동을 한 빈도, 남편이 가사노동을 분담하는 정도에 대한 만족도, 부부관계에 대한 만족도가 모두 유의미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남
 - 부부가 떨어져 살더라도 학령기 자녀가 있으면 부부는 만났을 때에 함께 시간을 보내려고 하며 남편은 일상에서 참여하지 못하는 가사노동을 분담하려는 노력을 보이고 이것이 아내의 부부관계만족도를 높이는 요인으로 볼 수 있음
- 초·중·고에 재학중인 학령기 자녀가 있으며 남편과 분거하고 있는 아내는 남편의 직장 때문에 분거하는 경우가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그리고 남편의 가사노동 분담 정도에 대한 만족도가 높을수록 부부관계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남
 - 학령기 자녀가 있는 아내는 자녀의 교육을 자녀와 동거하고 남편과 분거하는 결정을 내렸을 가능성이 높고, 가족과 떨어져 사는 불편함과 외로움을 감수하고 생계부양자의 역할을 수행하는 남편에 대한 고마움이 부부관계만족도에 투영되었을 것으로 예상됨
 - 내는 평상시에 자녀의 교육과 가사노동을 전담해야 하는 것에 대한 부담이 높을 것이므로, 남편과 만났을 때 남편의 가사노동 분담 노력은 가사노동에 투입하는 절대적인 시간과는 무관하게 아내에게 만족감을 주며 아내로 하여금 부부관계에 대해 만족하다는 느낌을 갖도록 할 수 있음
- 학령기 자녀가 없는 분거가족 아내의 경우에는 남편의 월평균 소득이 많을수록, 남편의 직장 때문에 분거하는 경우가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부부가 함께 활동하는 빈도가 높을수록, 아내가 남편의 가사노동 분담 정도에 만족할수록, 그리고 전통적인 결혼 및 가족 가치관을 가지고 있을수록 아내가 보고하는 부부관계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남
- 이와 같이 학령기 자녀의 유무에 따라 남편과 분거하고 있는 아내가 경험하는 부부관계의 특성과 부부관계만족도 관련 요인이 다르다는 연구결과는 표면적으로 부분분거의 이유로 드러나지는 않았지만 자녀교육이 분거하는 부부의 관계의 질과 관련이 있는 요인일 수 있다는 가정을 뒷받침해주고 있음
- 또한 분거하는 부부의 부부관계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가족생활주기 단계를 고려한 개입이 필요하다는 점과, 학령기 자녀와 동거하는 아내가 경험하는 부부관계만족도의 이면에서 작용하고 있는 메커니즘에 대한 심층적인 연구의 필요성을 시사함